

중학생의 라면소비 실태조사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장 명 숙·현 영 희*·김 복 남**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춘천전문대학**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by
Middle School Students
—Kangwon do Area—

Myung Sook Jang · Young Hee Hyun* and Bok Nam Kim**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t. of Traditional Cuisine, Chuncheon Junior College***

Abstract

Consumption pattern of Ramyon (fried instant noodle) by middle school students at age of 13 ~ 15 years in Kangwon-do area was surveyed by questionnaire.

About 67% among 866 students consumed Ramyon more than once per week. On the whole, common Ramyon was frequently consumed as a kind of substitutes for supper sand between meals at home because of its convenience. The advertisement had strong effect on the selection of ramyon.

Consumers considered that taste of soup is important quality factor of Ramyon In terms of the texture of cooked noodle, the most desirable was chewy and hard texture. The most undesirable was swollen and mushy texture. The most desirable and undesirable taste of soup was respectively spicy and greasy taste.

At presen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sumption pattern between sex were observed in most cases.

I. 서 론

중학생의 연령은 13~15세로 성장발육과 지적발달에

영향이 큰 중요한 시기이며^{1,2)} 이때 균형잡힌 식사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어야 함은 이미 강조되어 있다^{3,4)}.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는 조기등교로 인하여 아침을

잘 먹지 않거나 지참한 도시락도 내용이 빈약한 경우가 많아 균형잡힌 식생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⁵⁻⁷⁾. 그러므로 국민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의 측면에서 볼때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기의 식사질에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식사의 질은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 주부의 식생활 관리능력, 영양지식, 가치관등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⁸⁻¹¹⁾.

한편 사회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결과로 가족의 구조 및 생활양식 더 나아가서 식생활 양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여성취업 인구의 증가등은 가공식품과 즉석편의 식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라면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1963년 이래 개발이 가속화되어 1981년 이후 연평균 소비량이 10%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1987년 국민 1인당 연평균 라면의 소비량은 9.9 kg에 달한다^{12,13)}고 보고되어 있다. 이렇듯 라면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으로 장들¹⁴⁾에 의한 강원도 지역 국민학생의 라면소비 실태조사와 김¹⁵⁾에 의한 서울 지역 라면소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습관에 대한 조사와 영양섭취 실태의 일환으로 일부에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발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 남·여중학생¹⁶⁾을 대상으로 라면의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라면을 품질인자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하여 식생활 관리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이하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9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된 설문지중 모든 문항에 답한 866부를 자료로 삼았다. 이때 866명에 대한 남, 녀의 비율은 남학생이 331명(38.2%), 여학생이 535명(61.8%)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라면의 소비실태와 품질인자에 관한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결과는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남·녀 상호관계는 상관계수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본 설문조사시 경제, 사회적인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X 21 Program을 이용하여 MV-20000 model 1 computer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소비실태

1) 소비빈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에 1회이상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74.6%, 여학생이 65.4%로 나타났다.

이는 장들¹⁴⁾에 의한 동일지역 국민학생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이며 김¹⁵⁾이 보고한 서울지역 중학교 남학생이 79.2%, 여학생이 78.4%인 것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달에 1회이하로 라면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5.4%, 34.6%로 여학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라면을 거의 먹지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학생, 여학생 모두 기타의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각각 35.7%, 34.0%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먹을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답했다. 영양가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은 여학생이 15.7%로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수업 등을 통하여 영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영양가에 대한 관심은 김¹⁵⁾이 보고한 서울지역 중학생의 경우에 약 30%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1. 라면의 소비빈도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거의 먹지 않음	10	3.0	37	6.9	47	5.4
1달에 1~2회	74	22.4	148	27.7	222	25.6
1주에 1~2회	161	48.6	251	46.9	412	47.6
1주에 3~4회	67	20.2	82	15.3	149	17.2
1주에 5~6회	19	5.8	17	3.2	36	4.2
합 계	331	100.0	535	100.0	866	100.0

$$r=0.9704 (p<0.01)$$

표 2. 라면을 먹지않는 이유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맛이 없음	12	14.3	21	11.4	33	12.3
밀가루음식이 싫음	11	13.1	23	12.4	34	12.6
먹을 기회가 없음	23	27.4	49	26.5	72	26.8
영양가가 나쁨	8	9.5	29	15.7	37	13.8
기 타	30	35.7	63	34.0	93	34.5
합 계	84	100.0	185	100.0	269	100.0

r=0.9491 (p<0.05)

표 3. 라면을 먹는 시기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아침 식사	2	0.8	4	1.1	6	1.0
점심 식사	68	27.5	84	24.0	152	25.5
저녁 식사	82	33.2	147	42.0	229	38.3
간 식	95	38.5	115	32.9	210	35.2
합 계	247	100.0	350	100.0	597	100.0

r=0.9320 (p<0.1)

2) 소비시기 및 장소

라면을 1주 1회이상 섭취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면을 먹는 시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남학생의 경우는 간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38.5%를 차지했으며 33.2%가 저녁식사로 먹고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42.0%가 저녁식사로, 32.9%가 간식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지역 국민학생의 경우 주로 식사대용으로 라면을 소비하는 것¹⁴⁾에 비하여 간식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김¹⁵⁾에 의해 보고된 서울지역 중학생의 경우는 간식과 아침식사로 라면을 소비하는 것에 비하여 강원도지역 중학생을 저녁식사와 간식으로 라면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장¹⁷⁾이 보고한 강원도지역 남, 녀중학생이 라면을 간식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과 일치되는 경향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표 4. 라면을 먹는 장소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가 정	220	89.1	332	94.9	552	92.5
구내식당	16	6.5	8	2.3	24	4.0
음식점	8	3.2	3	0.8	11	1.8
기 타	3	1.2	7	2.0	10	1.7
합 계	247	100.0	350	100.0	597	100.0

r=0.9988 (p<0.01)

표 5. 라면선택 방법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특정회사의 특정제품	57	23.1	67	19.1	124	20.8
특정회사의 여러제품	67	27.1	131	37.4	198	33.2
구별없음	123	49.8	152	43.5	275	46.0
합 계	247	100.0	350	100.0	597	100.0

r=0.7858

한편 라면을 먹는 장소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학생 모두 가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각각 89.1%, 94.9%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¹⁴⁾에 의한 동일지역 국민학생의 경우와 김¹⁵⁾에 의한 서울지역 중학생의 경우에서도 일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중학생은 라면을 가정에서 주로 저녁식사와 간식으로 소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라면제품별 기호도

라면을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별없이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남, 녀학생이 각각 49.8%와 43.5%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특정회사의 여러제품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가 37.4%로 남학생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한편 주로 소비하는 라면의 형태에 관한 조사결과 표 6에 있다. 주로 섭취하는 라면의 형태는 100원짜리 라면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남학생이 39.3%, 여학생이 41.7%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구별없이 먹는

표 6. 라면의 형태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100원짜리의 라면류	97	39.3	146	41.7	243	40.7
200원짜리 라면류	42	17.0	67	19.1	109	18.3
우동형 라면류	19	7.7	38	10.9	57	9.5
용기면류	14	5.7	10	2.8	24	4.0
구별없음	75	30.3	89	25.5	164	27.5
합 계	247	100.0	350	100.0	597	100.0

r=0.9696 (p<0.01)

표 7. 라면을 먹는 이유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경제성	17	6.9	5	1.4	22	3.7
맛	52	21.1	96	27.4	148	24.8
편의성	176	71.3	248	70.9	424	71.0
영양가	2	0.7	1	0.3	3	0.5
합 계	247	100.0	350	100.0	597	100.0

r=0.9894 (p<0.05)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¹⁵⁾이 보고한 서울지역 중학생의 경우 200원짜리 라면류를 가장 많이 먹는다고 내놓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4) 라면을 먹는 이유

라면을 먹는 이유는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식사대용으로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남학생이 71.3%, 여학생이 70.9%를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은 맛이 좋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¹⁵⁾에 의한 서울지역 중학생에서도 동일한 경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¹⁷⁾이 주부를 대상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는 이유를 조사 결과에서도 일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라면은 편의성과 맛때문에 주로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라면선택의 동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라면선택의 동기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선전 또는 광고에 의하여 라면을 선택하

표 8. 라면 선택의 동기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제조회사	60	24.3	69	19.7	129	21.7
선전 또는 광고	110	44.5	179	51.1	287	48.3
포장 및 디자인	19	7.7	16	4.6	35	5.9
신제품을 위주	58	23.5	86	24.6	144	24.1
합 계	247	100.0	350	100.0	597	100.0

r=0.9886 (p<0.05)

표 9. 라면의 품질요인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면 발	43	17.4	40	11.4	83	13.9
국 물	114	46.2	161	46.0	275	46.1
돌다중요	73	29.6	139	39.7	212	35.5
모르겠음	17	6.8	10	2.9	27	4.5
합 계	247	100.0	350	100.0	597	100.0

r=0.9520 (p<0.005)

는 비율이 가장 높아 44.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내 남자 중학생의 경우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영양지식을 얻는다고 보고한 한¹⁸⁾의 연구결과와 상통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그다음은 제조회사와 신제품을 위주로 라면을 선택한다는 비율이 각각 24.3%, 23.5%를 보여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가장 높은 것은 선전 또는 광고에 의한 것이고 그다음은 신제품을 위주로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제품 역시 TV 또는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제품선택에 있어서 선전이나 광고등의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2. 품질인자에 대한 기호도

1) 품질요인

라면을 먹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관한 것은 표 9에 나타나 있다. 중요시하는 인자는 남학

표 10. 면발굵기에 대한 기호도

	남		여		합계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인원	비율 (%)
굵은 면발	64	25.9	79	22.6	143	24.0
보통 면발	114	46.2	178	50.9	292	48.9
가는 면발	32	13.0	51	14.6	83	13.9
구별없음	37	14.9	42	11.9	79	13.2
합 계	247	100.0	350	100.0	597	100.0

r=0.9850 (p<0.05)

생, 여학생 모두 국물의 맛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각각 46.2%와 46.0%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국물의 맛과 면발의 맛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들¹⁴⁾이 보고한 동일지역 국민학생에게서도 일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김¹⁵⁾에 의한 서울지역 중학생이 국물의 맛과 면발의 맛 모두를 중요하다고 답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 면발의 조직감

표10에 나타난 면발의 굵기에 대한 기호도를 살펴보면 남, 녀학생 모두 보통굵기의 면발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46.2%, 50.9%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로 섭취하는 라면의 형태가 100원짜리였음을 상기하고 100원짜리 라면류가 대체로 보통굵기의 면발인 것을 생각할 때 이로부터 면발에 대한 기호가 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라면 면발에 대한 조직감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좋아하는 면발의 상태는 쫄깃쫄깃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70.0%, 여학생이 75.1%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는 부드러운 것에 대한 기호도가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있다.

싫어하는 면발의 상태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호물호물한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33.6%를 차지하고 그다음이 풀어진 것으로 나타나 31.2%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풀어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44.9%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 중학생의 경우 대체로 쫄깃거리며 꼬들꼬들한 라면의 면발을 좋아하고 호물거리고 풀어진 면발은 싫어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김¹⁵⁾에 의한 서울지역 중학생에서도 일치하는 경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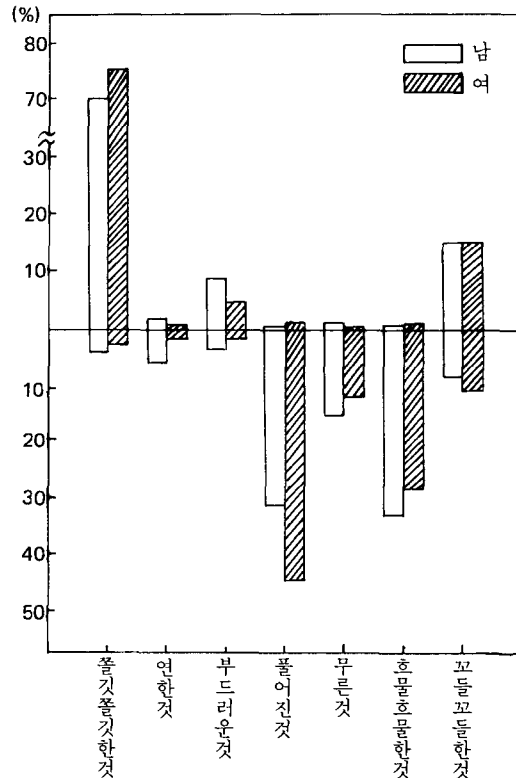


그림 1. 라면 면발의 조직감

(상; 선호하는 조직감, 하; 기피하는 조직감)

3) 국물의 맛

가장 좋아하는 국물의 맛은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남, 녀학생 모두 얼큰한 맛이라고 답했으며 각각 67.6%와 69.7%를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은 구수한 맛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가 여학생의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싫어하는 국물의 맛은 남학생의 경우 짠맛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서 47.0% 그다음에 느끼는 맛으로 답한 비율이 44.1%인 것에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는 느끼한 맛이라고 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아 56.3%를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이 짠맛으로 나타나 3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라면의 국물맛에 대한 기호는 얼큰하고 구수한 맛을 좋아하고 짠맛과 느끼한 맛을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장들¹⁴⁾에 의한 동일지역 국민학생의 경우와 김¹⁵⁾에 의한 서울지역 중학생의 경우에서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중학생의 라면섭취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저녁식사대용으로 또는 간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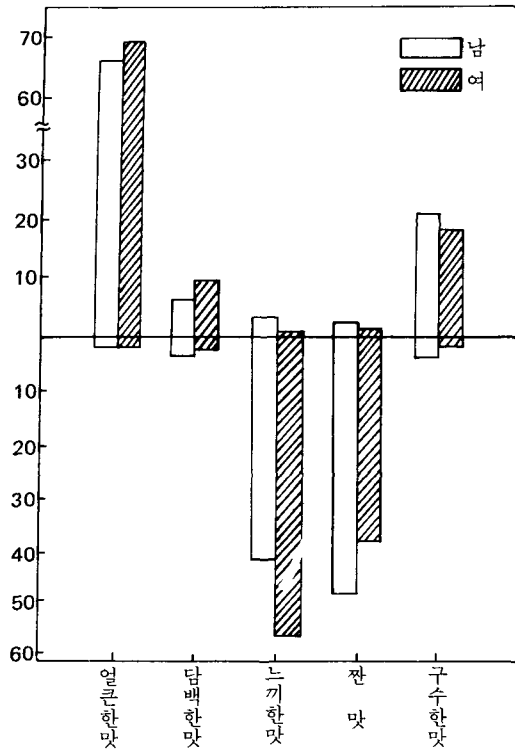


그림 2. 라면국물의 맛
(상 ; 선호하는 맛, 하 ; 기피하는 맛)

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과 라면이 성장발달기 중학생의 영양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품질의 개선이 요구되어지며 대중매체를 통한 과도한 선전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요약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3~15세의 중학교 학생 866명을 대상으로 라면소비실태와 품질인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1) 총 866명중 67%가 라면을 1주에 1회이상 섭취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가정에서 저녁식사 또는 간식의 형태로 라면을 이용하고 있었다.
- 2) 라면을 먹는 주된 이유는 편의성과 맛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면을 선택할 때는 선전이나 광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 3) 라면을 먹을때 가장 중요시하는 인자는 국물의 맛이었으며 대체로 보통정도 굵기의 면발을 선호하고 있었

다.

4) 면발의 조직감은 쫄깃쫄깃하고 꼬들꼬들한 것을 좋아했으며 흐물거리고 풀어진 면발은 싫어했다. 국물의 맛은 얼큰한 맛을 가장 좋아했으며 그다음이 구수한 맛으로 나타났고 느끼한 맛과 짠맛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라면선택방법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참고 문헌

- 1) Collis, W.R.F and Magaret, T.O., Multifacial causation of malnutrition and retarded growth and development., Malnutrition, Learning, and Behavior, Cambridge MIT press. pp. 51-57, 1967.
- 2) 김천호, 특수영양학, 수학사, p. 192, 1987.
- 3) Stare, F.J. and McWilliams, M., Living Nutrition, 2nd ed. John Wiley & Sons Inc. Canada, p. 352, 1977.
- 4) Mitchell, H.S., Nutrition in relation to stature, *J. Am. Dietet. A.*, 40:521, 1962.
- 5) 안숙자, 대전지역 중학생 도시락의 영양실태 및 기호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1):11, 1975.
- 6) 장명숙, 서울시내 중학생의 도시락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6(1):35, 1973.
- 7) 안순례, 김경애, 광주시내 여중학생의 도시락 영양실태와 식품기호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6(3):53, 1988.
- 8) Hinton, M.A., Eppright E.S., Chadderdon, H., and Wolins, L., Eating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girls 12 to 14 years old, *J. Am. Dietet. A.*, 43(3):223, 1963.
- 9) 이혜옥, 개인의 가치관과 식생활관의 관계분석,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 10) 박일화, 김숙희, 모수미, 영양원리와 식이요법, 이화여대 출판부 pp. 155-161, 1982 .
- 11) Sims, L.S. and Morris, P.M., Nutritional status of preschoolers, *J. Am. Dietet. A.*, 64(5):492, 1974.
- 12) 한국통계월보, 경제기획원, 1988.
- 13) 김성곤, 우리나라 밀가루 이용실태 조사, 단국대부설 식량개발 연구소, 1988.
- 14) 장명숙, 황재희, 현영희, 국민학생의 라면소비 실태조사, 한국조리과학회지, 4(2):81, 1988.
- 15) Sung Kon Kim, Research on noodle-making properties of U.S. Wheats, Dankook University press. pp. 3-34, 1989.
- 16) 김상애, 鈴木久及, 급식학교 어린이의 식생활에 대한

- 고찰, 한국영양학회지, 21(4):223, 1988.
- 17) 장명숙, 강원도지역 남·여 중학생의 식습관 및 식품 기호에 관한 조사, 관동대학 논문집 13:9, 1985.
 - 18) 한백란, 서울시내 초·중학생들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6.
 - 19) 방순자, 충주시 여중생의 식사실태와 기호도 조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7.
 - 20) 이순향, 광산촌 중학생의 영양섭취 실태조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7.
 - 21) 나영후, 남·여중학생의 영양지식에 대한 관심도 조사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22) 이일하, 이미애, 서울시내 여자 중학생들의 성장발육과 영양섭취 실태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1(1):37, 1983.
 - 23) 김혜경, 주부들의 영양교육을 위한 사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2):55, 1987.
 - 24) 임국이, 김선효, 가정환경이 청소년기 식사의 질에 미치는 영양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9(1), 23, 1986.